

# 2007 올해의 환경인 상 시상식



## 제종길 국회의원, 김영화 환경기술진흥원장

### 환경전문기자회 선정 '올해의 환경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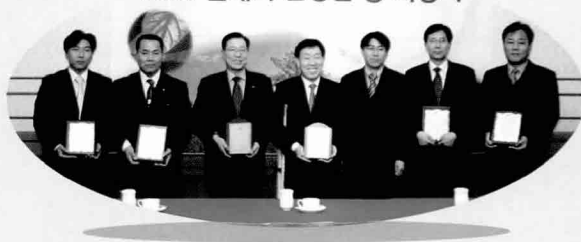
환경전문기자회는 구랍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제종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과 김영화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원장을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2007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된 제종길 국회의원은 2007년 한해 동안 환경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제17대 국회 기간동안 환경교육진흥및지원법 발의,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환경관련 서적인 '바다와 생태이야기' 출간 등을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돼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김영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은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포함한 환경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환경기술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진흥원은 우리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환경기업들의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폐기물관련기술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이 호평을 받았다.

환경전문기자회의 '올해의 환경인' 선정 기준은 한해

2007 올해의 환경인 상 시상식



동안 환경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도 환경분야에서 계속해 함께 참여 하실 분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위주로 선정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감사패는 한국환경자원공사 강희태 실장,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박병록과장, 환경보전협회 장규신 사무총장에게 수여됐다. 이외에도 한해 동안 환경전문기자회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었던 사람에게 공로패도 수여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이경재 국회의원과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이 수상 했다. (☎)